

# 가난 극복의 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김명찬\*

## 【요약】

이 연구는 가난 극복의 경험을 주제로 하고 있다. 다차원적 측면 가난으로 인해 개인이 경험하는 내외적 갈등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가난의 심리내적, 관계적 측면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 관찰 및 분석지, 대화, SNS 댓글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분석하였고, 주요한 범주를 도출하였다.

“수치와 불안으로서의 가난”을 통해서 가난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로 인한 불일치와 불안 등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욕망에 대한 자기 처벌적 태도”을 통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과정에서 욕망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가난 치료제: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를 통해서 가난으로부터의 온전한 회복이 좋은 관계의 충분한 경험에 기인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이 연구가 가난의 다차원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역동을 이해하고, 치유의 단서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가난, 수치, 주체성, 관계, 자문화기술지

---

\*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 I. 들어가며

가난해진다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세상이 무서운 곳으로 경험되고 나 자신을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경험하게 만든다. 내 기억 속의 우리 집은 가난했다. 4남매와 부모님이 쪽방에서 모두 함께 잠들었고 다음 날이면 몇 안 되는 공중 화장실에 길게 줄을 서야 했다.<sup>1)</sup> 나의 경험 세계 속에서의 가난은 자기(self)의 분열과 깨어짐을 촉발시키는 것이었고, 관계적인 맥락에서는 위로받거나 진정되지 못하는 경험에 해당했다. 가난은 나의 내면적 ‘자기(self)’에 각인되었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가난은 결코 낭만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나에게 가난은 부인하고 싶은 ‘수치’였고, 반드시 벗어나야 할 끔찍한 ‘징벌’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가난이 왜 나에게 징벌이 되었는지, 정말 가난 자체가 징벌이었는지 오랫동안 구분할 수 없었다. 가난해서 아픈 것인지, 아파서 가난한 것인지 말이다.

나의 이야기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내가 겪었던 생각과 삶의 혼란에 대한 나 나름의 답안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한다. 나는 가난이 싫었지만 40대 중반에 들어선 지금에도 여전히 물리적 가난의 언저리에서 있음을 확인한다. 나의 삶에 대해 최선을 다 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결과적으로 가난을 벗어났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왜 오랫동안 가난을 싫어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난을 벗지 못한 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비교적 평등하게 가난했고, 아직 많은 자녀를 낳던 시절 우리 사회의 가족들은 가난을 벗기 위해 얼마 안 되는 물질적·심리적 자원을 될 만한

---

1) 김명찬 (2015a).

자식에게 ‘몰아주기’하는 체제를 구축시켰다.<sup>2)</sup> 몰아주기는 다른 한편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희생하는 자녀가 제공하는 자양분을 바탕으로 될 만한 자녀가 출세하는 방식을 통해 나의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성공시켰고, 그 덕으로 자신들도 가난을 ‘면(免)’하게 되었다. 이것은 비단 개별 가족의 생존 전략은 아니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부의 주도하에 될 만한 특정 기업들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대기업 주도’의 고속 경제 성장을 추구했다.<sup>3)</sup> 나의 부모 세대가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절실히 추구했던 것은 가난을 ‘면’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가난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가난이 ‘좋은 것’이었다면 그토록 치절하게 가난을 벗기 위한 노력을 했을 리 없다. 가난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길래 우리는 그토록 가난을 벗어나고자 했을까?

일제치하와 전쟁,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격변과 더불어 지독한 ‘가난’을 겪었던 나의 부모 세대들은 가난을 끊기 위해 독일의 광부, 중동의 건설 노동자, 미국의 청소부 또는 마트의 직원, 베트남전의 용병이 되기를 꺼려하지 않았다. 이것은 절대적 차원의 ‘결여’ 또는 ‘없음’이 언어와 음식, 문화의 이질성과 생명의 위협까지 감내할 정도로 피하고 싶은 어떤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후진적’ 농경 사회에서 산업 국가로 ‘진화’했고, 결국 먹고는 살 만한 상태가 되었다. ‘물리적’ 가난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다.

무섭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거부적 경험 상태로서의 가난이 해결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난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가난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관점이 우선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가난을 벗어난 지금은 ‘분배의 정의’나 ‘더불어 잘 사는’ 삶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분배의 정의는 ‘절대적 가난’보다는 ‘상대적 가난’이나 ‘주관적 가난’과 관련 된다.<sup>4)</sup> 물리적

2) 김명찬 (2015a), p. 191.

3) 유진수 (2012).

4) 김수현·이현주·손병돈 (2009).

가난이라는 절대적 측면 대신에 비교사회적 맥락이 우리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IMF 이후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양극화 현상,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초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가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sup>6)</sup> 가난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맥락, 관계의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가난을 정의하는 데 있어 소득의 결핍 등과 같이 객관적 지표내지는 단일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sup>7)</sup> 이것은 가난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 (multidimensional approach)’을 요구하는 것이다.

가난을 측정하고 정의 내리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다차원적 요소로는 신체적 상태, 정서 상태, 사회적 관계(가족, 친구, 동료 등), 개인적 목표, 자존감, 존재감,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등이 있다.<sup>8)</sup> 이러한 요소들은 자존감이나 정서, 존재감 등 개인의 심리내적 요소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충족감 등 사회적 요소 모두가 가난을 정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즉 가난은 심리적 차원의 건강과 사회적 연결망의 튼튼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sup>9)</sup> 실제로 자아존중감이나 우울과 같은 심리내적 요인들은 빈곤지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0)</sup>

가난의 정의가 가난에 대한 횡단적 시각에 해당한다면 가난의 원인에 주목하는 것은 종단적 시각에 해당한다. 가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가난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sup>11)</sup> 가난을 개인의 태만과 의존적 태도 - 약물, 알코올

5) 김정원 (2012); 김진숙·이혁구 (2012); 하경희·강병철 (2013).

6) 김진숙·이혁구 (2012).

7) 김교성·노혜진 (2011); 이현주·정은희 (2014); 정현정 (2013); Atkinson & Davoudi (2000); Hills (2002).

8) 김교성·노혜진 (2011).

9) 박상규·이병하 (2004); 정현정 (2013).

10) 이상록·이순아 (2010); Lee & Vinokur (2007); Zabkiewickz & Schmidt (2007).

11) 오현주·이상신 (2015); Frerer & Vu (2007).

중독, 게으름, 낙약함, 능력 부족, 의지 부족 등 - 에서 접근하는 시각은 가난의 원인을 개인에게 귀인 한다. 이러한 관점은 가난한 멕시코인들의 삶을 인류학적 방법으로 연구했던 사례에서 기인한다.<sup>12)</sup> 이 문헌에서 ‘가난의 문화(culture of poverty)’ 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가난의 문화는 다시 ‘행동(behaviors)’과 ‘경험(experiences)’의 차원으로 구분된다. 행동의 차원에는 ‘명확한 판단력의 부족’, ‘의존성’, ‘무력감’, ‘강한 주변부 의식’, ‘혼외 출생을 유발하는 난잡한 성행위’ 등이 해당하고, 경험의 차원으로는 ‘자기 문제에 대한 한정된 지식’, ‘지역적 환경’, ‘삶의 방식’ 등을 반영하는 것들이다. 가난의 문화라는 관점은 가난이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내적으로 학습되는 하나의 아비투스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 특성(personal characters)’으로 자신도 모르게 가난을 유지하고 재생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세대 간에 가난을 전이시키게 된다.<sup>13)</sup> 반면에 가난의 사회구조적 원인론은 가난이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 무능한 정부, 차별적인 환경,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인 맥락 등에서 비롯된다고 본다.<sup>14)</sup> 사회구조적 원인론에서는 가난을 사회 구조가 일으키는 불평등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이들이 당면한 구조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된다.

가난의 정의와 기원에 대한 관점을 종합해 보면, 가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복지를 증대시키는 물리적, 사회구조적 전략이 필요한 동시에 치료적 교육이나 심리상담을 통해 개인의 심리내적 역량과 관계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난한 이들의 교육과 상담을 담당할 이들이 가져야 할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 준다. 특히 가난한 이들의 심리내적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면 물질적 지원과 별개로 이들의 개별적 자립과 사회적 소속감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

12) Lewis (1959).

13) Frerer & Vu (2007).

14) 오현주·이상신 (2015); Frerer & Vu (2007).

나는 가난한 이들의 내적 경험과 극복 과정을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기술하고자 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정책적 접근이나 실증적 연구로서 변인 연구 등은 가난이 내포하고 있는 생생한 장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sup>15)</sup> 특히 심리내적 측면에서 가난은 외상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에서 생생함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sup>16)</sup> 따라서 이러한 내부적 경험을 최대한 생생하고, 풍부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외부자적 관점에서 거리를 둔 채 진행되는 연구 방식보다는 내부자의 관점에 대해 가난 이론과 상담 이론을 적용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가난에 대한 경험의 기술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가난에 대한 정서적 경험을 촉발하고 나아가 가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둘째, 가난의 회복에서 관계(relations)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sup>17)</sup> 나 역시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와 관계에서 그 질과 양의 변화가 가난의 회복과 많은 부분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가난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하였는지를 기술하고, 이를 이론적 맥락에서 분석 및 해석함으로써 가난 극복에서 관계적 맥락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셋째, 앞서 언급하였듯이 나는 정서적으로 가난을 끔찍한 상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가난에 속해 있었고, 여전히 속해 있다. 따라서 나의 바람과 노력, 그리고 현실 간의 간극이 벌어진 이유와 그에 대한 대처 전략을 연구의 방식을 통해 탐색해 보고, 독자들과 함께 그 의미의 타당함을 음미해 보고자 한다.

---

15) 김진숙·이혁구 (2012).

16) 박상규·이병하 (2004); 하경희·강병철 (2013); Hudson (2016); Tuason (2008).

17) 김교선·노혜진 (2011); 김진숙·이혁구 (2012); 정현정 (2013); Tuason (2008).

## II. 연구방법

자문화기술지는 자기(self)와 타자(others) 간의 공유된 문화적 맥락을 자기(self)의 경험을 중심으로 밝혀내는 방식을 취한다.<sup>18)</sup> 연구자 개인의 ‘자전적 이야기(autobiographic narratives)’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에서 검토된다.<sup>19)</sup> 연구방법으로서 자문화기술지가 갖는 특성은 탐구의 주제(subject)로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객관성보다는 연구자의 주관성(subjectivity), 연구자-연구참여자 상호주관성(researcher-participant intersubjectivity)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sup>20)</sup> 사회과학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주관성을 중시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문화를 전수받는다라는 점에 있다.<sup>21)</sup>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인간은 취약하며 상호의존적인 존재라는 특성을 지닌다. 개인은 자신의 취약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의지함으로써 자기를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개인의 경험과 인식은 “공동체의 일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sup>22)</sup> 따라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은 단지 개별적인 경험과 성찰이 아닌, 집단의 경험과 성찰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문화기술지는 나의 가난 경험 안에 담겨진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함의점을 밝혀내는 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실용주의적 관점(pragmatic perspective)’에서 자료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실용주의적 관점의 연구는 ‘귀추논리(abductive logic)’에 근거하고 있다.<sup>23)</sup> 귀추논리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8) Chang (2008).

19) Ellis (2004), p. 37.

20) Chang, Ngunjiri, & Hernandez (2013), p. 18.

21) 김명찬 (2015a), p. 168.

22) De Munck (2000).

23) Brinkmann (2014).

- ① 사건 ‘X’의 발생 및 발견 (수능 전국 30위를 한 선우)
- ② 잘 이해되지 않는 사건 ‘X’의 속성 (시험을 망쳤다고 괴로워하는 선우)
- ③ ‘Y’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 사건 ‘X’도 이해할 수 있음 (형과 누나가 모두 수능 10위권이었음)
- ④ 따라서 잠정적으로 Y라는 전제를 가진 사건 ‘X’는 수용 가능(make sense) (형과 누나 모두 공부를 잘 했기에 자기 점수가 인정되지 않는 선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음)

귀추논리에 근거한 질적 연구는 연구자를 정서적으로 ‘와해(breakdown)’시키고, 인지적으로 혼란을 주었던 ‘사건들(instances)’을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연구자는 선정한 주요 사건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사건 이면에 감춰진 개연성 있는 전제를 찾아낸다. 그 결과 처음에 연구자가 경험했던 정서적 와해와 인지적 혼란이 해결되는 것이다. 연구 주제에 적합한 ‘사건들’이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일반화된 결과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sup>24)</sup> 이처럼 연구 주제의 근거가 되는 일련의 ‘사건들(instances)’을 ‘걸림 자료(stumble data)’라고 한다.<sup>25)</sup> ‘stumble’은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의 의미로 분석에 사용되는 자료가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를 인지·정서적으로 ‘휘청거리고’, ‘걸리게’ 만드는 사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는 심리적 가난과 관련하여 나를 가장 비틀거리게 만들었던 사건들 - 중년의 원룸 생활, 일과 돈에 대한 집착과 관련된 사례들, 이중적 동기로 제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 - 을 선별하였다. 나의 이야기를 분석하기 위해 회상 자료, 그리고 현재의 경험, 일기, 자기반성 자료 등을 토대로 주요한 사건을

---

24) Denzin (2001), p. 63.

25) Brinkmann (2014).

선정하고 그 사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나의 글쓰기는 세 가지 유형<sup>26)</sup> 중 가난 경험을 심리적이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자서전적 문화기술지(auto-biographic ethnography) 방법을 적용하였다. 나는 고백적-감성적 글쓰기(confessional-emotive writing)를 통해 나의 가난 경험을 최대한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sup>27)</sup>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일곱 가지 전략 중 나의 이야기에 적합한 여섯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sup>28)</sup> 첫째, ‘장기간에 걸쳐 높은 강도로 현장에 참여하기’로서 나는 가난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과 기록 등을 토대로 한 풍성한 자전적 경험을 지니고 있다. 둘째, ‘풍부한 자료’ 면에서 나는 주요 사건들(instances)의 선정을 위해 2003년부터 6개의 자료보관소(archive)를 통해 생성해 온 ‘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셋째, 내가 관찰한 나 자신의 가난 경험에 관한 결과 분석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가족, 제자, 연구 동료 등에게 연구 초고 전체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연구에 반영하였다. 넷째, 나의 연구 결과에 모순되거나 상반되는 설명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검증된 상담학 이론, 사회학 이론,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연구 결과를 대조·분석하였다. 다섯째, ‘삼각검증’을 위해 가족과의 대화, 나의 성찰 기록, 제자들과의 대화, SNS 댓글, 사진 자료 등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한 자료에 의존할 때 발생 가능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일곱째, 연구 결과를 선행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고, 상담학 박사과정 8인, 석사 과정 1인에게 본 연구를 소개하고 피드백을 받았으며, 자문화기술지 및 질적 연구 전문가인 교육학 교수 1인에게 전문적인 검토를 받았다.

---

26) Reed-Danahay (1997).

27) Chang, Ngunjiri, & Hernandez (2013), p. 125.

28) Maxwell (2009), pp. 244-245.

### Ⅲ. 수치와 불안으로서의 가난

#### 1. 부끄러운,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2013년 2월 말의 어느 날 1톤 트럭으로 이사짐을 옮겼다. 박사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더 이상 1인 기숙사에 머물 수 없었기에 방을 찾아 나서야 했다. 전일제 박사 과정 3년차, 논문 학기였던 나는 가지고 있던 현금을 거의 다 쓴 상태였기에 전세를 생각하기는 어려웠고, 그렇다고 약간의 보증금과 매달 수십만 원의 월세를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교사 생활 7년 반 동안 모아둔 돈은 생각보다 적었다. 우선 상담 공부를 하느라 쓴 돈이 많았고, 남은 돈마저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처에게 넘겼기에 더욱 빈곤했다. 매월 약간의 양육비와 부모님 용돈까지 나가는 상황에서 여유를 부릴 형편은 못 되었다. 마지막 학기는 논문 학기였기에 돈을 벌기도 어려웠고, 그럴 시간도 마땅치 않았다. 다행히 지도교수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 프로젝트 업무, 학술지 작성, 그리고 학위 논문을 쓰기에 하루가 빠듯했다. 약 한 주간 동안 학교 앞 자취방들을 이곳저곳 헤매다가 마침내 적절한 방을 발견했다. 보증금은 없었고, 월세로 20만 원이었다. 원룸 같은 고시원 방이었다.

2015.12.11. 페이스북에 남긴 글  
박사과정 중 2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의 삶  
물이 새는 작은 화장실, 난 그때 참 아팠던 것 같다.  
신림동 꼭대기 그 집이 아련하다.

건물 입구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반 층 정도 계단을 올라가면 내 방의 철문이 보였다.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는 나무로 된 문이 있었다. 방에 들어서면 대략 30cm 정도의 폭에 타일이 붙어 있는 공간이 나왔다. 일종의 ‘현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간 바로 오른쪽에 작은 화장실이 있었다.

화장실은 방보다 키가 컸다. 들어가면 변기 하나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문 쪽에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공간이 워낙 협소한 상태에서 들어선 화장실이기에 변기 오른편과 벽이 너무 가까웠다. 그래서 일을 볼 때 오른쪽 다리는 어정쩡하게 앞으로 빼야만 했다. 샤워를 할 때에는 물이 잘 빠져 나가지 않아서 조금 오래 샤워를 할 경우 조만간 화장실에 물이 차올랐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오랜 시간 샤워를 할 수 없어 애를 먹었다. 물이 차 있다 빠져나갈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화장실의 물이 벽에 스며들어 방으로 습기가 오르기 일쑤였다. 방 안의 화장실 쪽의 벽면 아래의 벽지는 흥건하게 젖어있는 경우가 잦았고, 장판에 가려진 부위는 곰팡이가 피어 보라색으로, 기분 나쁜 시커먼 색으로 변색되었다.

그 모든 불편함과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공동 샤워실과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런 안도감 때문에 그 방이 좋았다. 공동세탁기를 사용해야 되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단 집의 모양새를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주방은 없었지만 어차피 혼자서 먹는 밥은 학교 식당을 이용하면 될 일이었다. 서울에서 구할 수 있는 방이 그렇게까지 ‘저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방이 마을버스 종점이 위치한 주택가의 맨 윗동네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언덕을 조금만 내려와도 비슷한 수준의 방 값은 좀 더 높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조금 불편해도 걸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것이 물질적 부담을 안는 것보다 좋았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도 원룸 같은 고시원 생활은 지속되었다. 시간 강의를 나가고, 박사후연구원을 하면서 지내는 삶은 그다지 여유롭거나 풍요로울 수는 없었다. 물론 학위를 취득했기에 더 이상 학비가 들지는 않았지만, 전공의 특성상 자격증을 받기 위해 들여야 하는 돈이 월 40, 5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상황에서 방학이면 끊기는 강사료를 받는 삶은 여유롭기 어려웠다. 학교를 졸업했고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신분에서 살아야 하는 고시원 생활은 현실로 받아들이기 거북했다. 이사한 직후 ‘트위터’에 올렸던 글이 떠오른다.

2013년 2월 말경 트위터에 올린 글(회상 자료)  
 자연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집으로 이사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 좋다.

‘SNS’에는 해석된 나의 삶이 비쳐진다. 해석된 삶이란 객관적 실체로서 나의 가난이 다소 그럴 듯하게 포장된 것을 말한다. 트위터의 글처럼 종종 학교에서 고시원까지 걸을 때면 자연스레 운동이 되고 좋았다.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었던 상황에서 신림동 꼭대기의 냄새나는 그 작은 방까지 걷는 길이 꼭 나쁘지만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낭만적이지도 않았다.

2014년 8월, 전임 교수 임용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나의 ‘작은 방’을 벗어날 수 있었다. ‘방’을 나가는 상황이 되어서야 화장실 배수 문제, 물이 새어 나오는 문제, 여름철에 벽을 타고 생겨난 곰팡이, 그리고 샤워기 머리가 깨진 부분에 대해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다. 내 삶의 개선이 아닌 일종의 인수인계를 위해서. 집주인 아주머니의 젊은 아들은 다소 머쓱해하며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면 미리 얘기해주지 그랬냐고 반응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외상으로서 가난 경험을 기술한 연구에 따르면 거주지가 열악하거나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경험에 해당한다.<sup>29)</sup> 가난하게 태어나 성장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연구 결과 역시 자신의 가난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열악한 주거 공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30)</sup> 가난을 다차원적으로 정의 내리려는 연구자들은 주거 문제를 가난 여부, 정도를 알아보는 핵심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sup>31)</sup> 이 중에서 페레즈-마요(Frez-Mayo)는 독립된 부엌,

29) Hudson (2016).

30) Tuason (2008).

31) 김경혜 외 (2010); 노혜진 (2011); 이현주·정은희 (2014); Dewilde (2004); Hicks (1988); Ferez-Mayo (2005).

목욕시설, 실내화장실, 적절한 규모의 공간 등을 가난을 정의 내리는 주요한 지표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거 지역과 공간은 가난의 대물림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기도 한다.<sup>32)</sup> 대도시 중산층 밀집 지역의 빈곤층 지역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은 교사들의 낮은 기대, 덜 가난한 이웃들의 거리두기 등을 통해 가난으로 인한 수치(shame)와 낙인(stigma)을 경험했다. 어느 곳에 사는가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로 연결되는 것이다.

전일제 박사과정 중에서 경험했던 나의 가난은 명징하게 나의 경제적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수치의 경험을 의미했다. 그 과정이 어떠한지 간에 더 나은 주거 환경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은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표시였다. 당연히 내가 어느 곳에 사는 지 말하는 것은 망설여지는 경험이었고, 주소를 써 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잠시의 부끄러움과 화끈거림을 경험하곤 하였다.

그 시절 나는 가난을 직면하지 않았고,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이 내가 원룸 같은 고시원의 개선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일 것이다. 누추한 일상을 조금 개선해 보려는 시도가 귀찮고 공상스럽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것이 나의 ‘진지한 일상’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더욱 비참함을 느끼게 될까 두려웠을지도 모르겠다. 대략 일년 반을 머물렀던 그 공간은 나에게서 분명한 현실이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상의 공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 2. 내외적 불일치와 불안

교수가 되었다고 해서 나의 가난이 급격히 달라질 바는 없었다. 다만 돌연 사회적 지위를 획득했다는 느낌은 컸다. 아직 새파랗게 젊은 학부생들부

---

32) 김정원 (2012).

터 50대 초입의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교수라는 이름이 주는 ‘권위’는 내 실체를 넘어서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만 같았다. 생각보다 초라한 내게 걸쳐지는 옷이 꽤 화려하게 여겨졌다. 정년이 보장된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교수가 된 이후에 내게 기쁨이 된 일 중 하나는 타지방에서 내려온 교수에게 학교 안의 원룸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이었다.

2015.12.10. 개인분석 카페에 남긴 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256,000원이면 살 수 있는 나만의 공간. 이 공간에는 화장실과 개수대가 설치된 썬크대가 있다.  
1인이 누울 수 있는 침대와 책상과 책꽂이, 그리고 옷장.  
현재 나의 집이다.

교수라는 그럴듯한 타이틀 외에 나란 사람은 수중에 가진 현금은 적었고,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은, 이제 좀 버둥거리며 살아보려고 애쓰는 중년의 남자일 뿐이었다. 가족들이 서울에 있는 교수들을 위해 허락된 원룸, 그들에게 잠시 머무는 공간이 내게는 ‘집’이 되었다. 나쁘지 않았다. 아니 나쁘지 않은 것으로 여기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나의 운전면허증 뒷면의 ‘기재 사항 변경’ 란에는 선명하게 “00관, 1220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00관 1220호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집이다.

더 이상 어디에도 나만의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따로 집을 구하지 않고 원룸에 살고 있다. 전세를 얻거나, 집을 살 정도로 충분한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4년 9월 처음 교수 임용이 되었을 당시에는 원룸 보증금 1,000만 원의 현금이 부족해서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했다. 일 년 반이 지난 지금, 열심히 노력한 덕에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약간의 현금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안정된 교직원 신분을 이용한 대출을 받는다면 기천만 원 정도는 저리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곳 원룸을 떠나지 않는다.

가끔 혼자 사는 교수를 걱정해 주는 나이 든 대학원 제자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로 나가 살지 않느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곤 한다.

“뭐 혼자 지내고 있고, 또 연구에 매진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연구하다가 잠깐 들어가 쉬었다가 바로 나올 수 있어서 좋아요.”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이유는 학자로서 꽤 ‘근사한 이유’이기도 하다. 두 가지 이유가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이유 때문에 학교 안의 원룸을 고집하는 것만은 아니다. 정서적으로 좀 더 강력한 이유는 내가 살게 된다면 근사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과 더불어 그런 근사한 집에 살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한데, 그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전작에서 이야기 했듯이 나는 초등학교 일학년 때부터 ‘빚’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다.<sup>33)</sup> ‘빚’이라는 개념을 경제적으로 알았기 보다는 “어린 시절 잠자리에서 나를 압도하고 질리게 했던 상처”로서 알고 있다. 어린 시절 가난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나로서는 근사한 집에 살기 위해서 저야 하는 빚이, 내가 그 빚을 감당할 만큼의 능력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싫다. 비록 작은 방에 사는 것이 좁고 불편하며, 빨래 바구니를 들고 세탁실로 내려가는 도중 아래층에 살고 있는 학부생들을 마주쳐야 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종종 겪어야 하지만 빚을 지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여겨진다. 교수로서 지키고 싶은 위신이나 체면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가난으로 인한 내적 상처 앞에서는 그다지 힘이 세지 않다.

가난한 이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distress)’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일상적 불안’에 시달린다고 한다. 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미래의 불안’에 시달리는 것이다.<sup>34)</sup> 나의 경우에는 사회적 직위 획득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위치에

33) 김명찬 (2015b), p. 101.

34) 하경희·강병철 (2013); 박상규·이병하 (2004).

있다고 보여 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나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선에서는 여전히 가난하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안하다는 것은 아직 나 자신이 안정되었다고 느낄 만큼의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충분하다는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교수라는 나의 지위에 묻혀 드러나지 않고 오롯이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IV. 욕망에 대한 자기 처벌적 태도

### 1. 감추고 싶은 욕망

교수 임용 후에 경제적 사정은 점차 나아지고 있다.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것, 방학 중에도 제대로 된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것, 부수적인 행정 업무나 출장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에서 온 젊은 교수에 대한 소문은 학생들의 입을 통해 금세 퍼졌고, 이런 저런 강의나 상담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돈을 벌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중요한 것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진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임용이 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갖게 된 습관 중의 하나는 ‘스마트폰 बैं킹 서비스’를 통해 수시로 계좌를 열어 보며 잔액을 확인하는 일이 되었다. 수당이나 강의를 받는 족족 따로 관리하는 저축용 계좌에 이체를 하고 있다.

2015.12.10. 개인분석 카페에 남긴 글

자주 돈을 세고 있다.

이번 달 저축을 얼마나 했는지,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를 이면지 뒤에, 다이어리 한 편에 정리하곤 한다. 외부특강이나 입시, 출장 등과 같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들어오는 추가 수입이 있을 때 액수의 고향을

막론하고 즐겁고 안심이 된다.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반면에 그런 기회가 많지 않은 주나 달은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하다.

굶주린 사람이 게걸스럽게 음식을 먹어 치우듯이 일하며 살고 있다. 돈을 번다는 것이 주는 위안이 있다. 이것은 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오직 나만 아는 내 모습이다.

제지들은 종종 나를 위하는 말을 한다.

“교수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좀 쉬면서 하세요.”  
“이번 주말에는 꼭 쉬세요.”

다정하게 나를 살피는 말을 듣는 것이 좋다. 물론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쉬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인가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무리하다 쓰러지면 그때 쉬려구요!”

일정에 빈 여백이 없을 정도로 살아가는 삶이 좋다. 학기 중에 5개 이상의 강의, 개별 학생 면담, 논문 작성, 행정 업무 수행, 출장, 회의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강의나 교육 요청엔 가급적 거절을 하지 않는다. 물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내가 그들의 삶과 전문성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하는 ‘정신적 기쁨’도 있다.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진정시키고 기분 좋게 하는 경험이다. 그에 비하면 정신적 기쁨은 나를 편하게 해 주거나, 안도시켜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쉰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물질적 보상을 받는다는 것일지 모르겠다. 한편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경험하는 일, 그리고 내가 것처럼 보상을 염두에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가난을 벗어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일이었고, 당연히 기뻐할 일이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나는 돈에

그다지 높은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것은 가난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나에게 혼란감을 안겨 주는 것으로 보인다.

가난을 벗어나고 견뎌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발견할 수 있다.<sup>35)</sup> 나의 경우에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많았다. 목표를 향해 지나치게 몰입하는 삶을 주제로 자문화기술지 논문을 쓰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나누었던 대화는 목표의식에 대한 나의 어색함과 부끄러움을 더욱 상기시켜 주었다.

2016.02.25. 지도학생과의 대화(재구성된 회상 자료)

지도학생: 제가 안 쓰고 안 먹으면서 잘 버텨왔거든요. 아마 40이 되면 건물주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힘들기는 하지만, 4, 5년만 버티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목표를 위해서 내가 너무 나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 아닌가 싶어서 불편합니다.

학생에게는 분명 현실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경험이었겠지만 나는 내심 부러움을 느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에게 아버지는 역할 모델인 것으로 보였다. 아버지 역시 주요 도시에 건물을 가진 분이였다. 그의 모습이 보기 좋으면서도 내게는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목표를 향해 진중하게 나아가는 집중력, 말로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곁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었다.

말단 공무원이었던 나의 아버지는 욕망을 긍정하고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셨던 적은 없었다. 집과 직장, 교회만 알던 남자였고, 유일한 욕망이라면 그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었다. 4남매가 모두 공부해서 대학을 나와 출세해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모시는 것 말이다. 거기에는 아버지 자신을 위한 야망이나 욕심, 계획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경험한 아버지는 자기를 희생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지원하는 모습이였다. 생각해 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35) 김교성·노혜진 (2011); Tuason (2008), p. 164.

것은 안타깝게도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기대보다는 자신이 희생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text)으로서 ‘성공’은 사라지고, 아버지의 삶의 방식은 ‘욕망의 거세’ 혹은 ‘희생’이라는 맥락(context)만 남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가난과 가난의 극복이라는 욕망 사이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면서 오랫동안 비틀거렸던 것 같았다.

## 2. 주체성 회복에서의 혼란

2015년 여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해외에는 여러 차례 다녀오기는 했지만 오직 놀기 위한 목적으로는 처음이었다. 마흔이 넘어서 처음으로 말이다. 교사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어 갔고, 방향이 있어 시간적 여유도 있었지만 해외여행을 가지는 않았다. 교사 연수나 자기 연수와 같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에 체류하는 동안 잠시 짬을 내어 하는 여행 외에는 말이다. 심리적 저항 같은 것이 있었다. 아직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힘이 생기지 않았는데 돈을 쓴다는 것이 불안하고 무서웠던 것 같다. 어떤 분명한 목적, 대의명분이 생겨서 하는 일 와중에 즐기는 것 외에 즐거움만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괴롭고 불안했다. 통장에 잔고가 비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는 불안하고 초조했다. 내가 그토록 일하는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을 갖기 위해 노력했던 것,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남이 가로채지 못하는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이유는 그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다. 그러던 내가 처음으로 휴가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아마도 이제는 그래도 된다고 여기는 여유가 생긴 모양이다. 교사 생활 하던 당시만큼 경제적 부유함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말이다.

문화생활을 제 돈 내고 하기 시작했다. 열심히 일해서 보상을 받았으니 제 돈 내고 비싼 뮤지컬을 본다. 가끔 누군가의 호의에 의해 손에 쥐어진 표, 이미 정해진 날짜와 시간, 좌석에 나를 끼워 맞추는 것은, 비록 그것이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짹짹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과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치유적이다. 가난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보기보다 작고, 초라하며, 미미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초등학교 시절이었다. 당시 우리 여섯 가족은 따로 여행을 가거나 하지는 못했다. 딱 한번 다 함께 섬으로 놀러 갔던 기억이 있지만 유쾌하고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지는 않다. 돈 때문에 동동거리는 여행으로 기억된다. 우리 가족은 주로 함께 다니던 교회의 여행에 동행했다. 당시 내가 살던 지역에서 제법 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부유했다. 목사님은 종종 흰색 양복에 빨간색 실크 타이를 메고, 보기 좋게 나온 배를 드러내고 있었다. 부유한 목사님이 시무하고 있는 부유한 교회는 번듯한 교회당과 버스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버스는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은 휴일에 교인들을 태우고 야유회를 가는 데 이용되었다. 나의 기억으로는 우리 가족끼리는 결코 가지 않았을, 아니 갈 수 없었을 용인 자연농원 같은 곳에 다녔다. 당시의 나에게 그 여행은 양가적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여행지는 우리 가족이 정한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교회가 정해주는 장소였다. 여행지에는 먹고 즐길 거리가 많았지만 내 기억 속에서는 넉넉한 용돈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나보다 우리 가정의 경제를 걱정하는 ‘착한 아들’이었던 나는 조금 받은 용돈도 쓴 적이 없었다. 나보다 더욱 착했던, 수재 소리 들던 고등학생 형은 어머니가 잘라 준 까까머리에 교련복을 입고 야유회에 갔다. 입을 옷이 없었고, 머리 깎을 돈을 아끼고 싶었던 착한 맏아들의 결정이었다.

2015년 5월의 어느 날. 어머니와의 대화(회상 자료)

어머니: 00이가 “엄마, 나 괜찮으니까 엄마가 머리 깎아주세요.” 그러는 거야. 우리 맏아들이 그렇게 착했다니까. 그렇게 도와주니까 엄마가 살았지, 그때는…

그렇게 착한 만아들이 있는 우리 집의 문화 속에서 나를 주장한다거나, 바라는 것을 요구하거나 마음껏 쓰는 일은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이었다. 돌아보면 운동회 때에도, 수학여행에 가서도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거의 쓰지 않고 돌아오곤 했다. 즐거워야 하지만 마음 한 부분은 불안했다. 과연 이 돈을 써도 되는가? 라고 여러 차례 고민한 후에야 약간의 돈을 썼고, 그마저도 쉽사리 후회하고는 했다.

오랫동안 나는 물리적 가난을 자유에 대한 환금성(換金性)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인식해 왔던 것 같다. 가난해서 그런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주체성을 인정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곰곰이 판단하고 사고해 본 적은 없었다. ‘돈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때에 할 수 없다고 주로 믿어왔던 것 같다. 여행을 가느냐, 맛있는 것을 먹느냐, 화려한 공연을 보느냐 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것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돈의 유무보다는 내 자신이 그럴만한 자격이 되고 주체성을 지니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처음 떠올려 보게 되었다. 가난을 실현가능한 능력에 대한 접근(capability approach)의 정도로 제시한 센(Sen)에 따르면, 가난이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에 의해 규정된다.<sup>36)</sup> 그리고 실현가능능력의 주요 지표에는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존재감, 개인적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등이 포함된다. 즉 가난이란 물질적 충족과 더불어 별개로 내 자신이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고, 주요한 의사결정에서 나의 의견을 말해도 되는 사람이며, 환경에 대해 나 자신의 통제권을 갖는 것이 합당하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의 충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나는 내 자신의 물질적 가난과 상관없이 내가 이러한 주체성을 가진 존재인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다. 어쩌면

---

36) 김교성·노혜진 (2011).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말은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네 마음껏 해도 돼”, “괜찮으니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 봐”라는 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 V. 가난 치료제: 마음을 알아주는 관계

강의 중에 보면 유독 어둡고 다른 생각에 빠져있는 듯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 마음이 괜찮은지, 힘들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묻고 싶을 때가 있다. 다만 내가 것처럼 아는 체 하는 것이 혹여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하여 망설일 때가 많다. 아플 때 기대하지 않은 선의로 다가와 다정히 물어주는 사람이 마냥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베푼 뜻밖의 호의가 동정으로 여겨질 때 몰려오는 ‘경멸’과 ‘수치’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선부르게 다가서는 게 조심스럽다. 물론 교수로서의 삶이 녹록치 않은 탓에 마음을 더 표현하지 못하는 나의 사정도 있다. 어쨌거나 마음이 아파 보이는 제자들을 보면 나 역시 마음이 쓰이고 괜찮은지 걱정하게 된다.

학과장으로서 결정해야 할 일 중 하나는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을 결정하는 일이다. 리스트에는 학생들의 경제 상황에 ‘등급’이 매겨져 있다. 그들의 개별적 아픔과 치열함, 곤란함과는 별개로 이런 저런 조건에 맞추어 학생들의 삶의 수준이 계량 가능한 숫자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다. ‘물리적 선의(善意)’의 대상이 될 학생들이 숫자로 매겨져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물리적 선의’와 그들의 사정을 나타내는 ‘수(數)’, 그것이 내가 그들의 가난을 만나서 돕는 유일한 통로인 셈이다. 계량화된 가난과 계량화된 선의에 그들이 쥐고 있을 심리적 가난을 위한 자리는 없다. 모든 것은 정해진 규칙과 절차 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수행된다. 물리적 선의를 받으며 그들이 고마워할지, 아니면 안도할지, 아니면 자신이 선의에 기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무력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지 그 수치는 아무

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나’와 ‘너’ 사이의 만남이 거세된 선의(善意)는 종종 오해를 낳는다. 주는 사람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주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그것이 가난을 살아온 나의 잠정적 결론이다. ‘물리적 가난’과 별개로 ‘심리적 가난’의 치료는 호의의 대상이 아닌,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나의 삶을 누군가 만져 주는 만남이 전제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가난이라는 외상에 익숙한 삶은 가난이 무섭다. 가난이 의도치 않게 말과 행동, 외모에 배여 나올까 봐 전전긍긍한다. 가난 또는 빈곤 한가운데 사는 삶은 나 자신이 더 이상 동등하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 마치 나 자신만 발가벗겨진 채 모두가 멀쩡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만 같다. 가난이 주는 아픔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가난을 경험하고 있거나 빈곤의 한가운데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학생이 남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돌아야 한다는 마음이 오른다. 그런 이유에서였을까? 2015년 2학기부터 매학기 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내놓기로 결심했다.

2015.10.15. 페이스북에 남긴 글

이번 학기부터 매학기 200만원씩 학부 학생들 장학금을 내놓기로 했다.

이번 학기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5명에게 40만원씩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학과 조교와 함께 학생들의 사정을 하나씩 살펴 간다. 학생들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조금 더 알고 있는 조교와 상의 끝에 장학금을 지급할 학생들을 선정하고 교내의 ‘학생취업처’에 가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학생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였다.

2015.10.28. 페이스북에 남긴 글

나: 장학금을 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학생: 글썩요. 잘 모르겠어요. 힘내라고 주신 것 아닐까요?

나: 음, 맞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첫째, 지금 너 만한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시기인 것 같아.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리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말야.

도서관에 앉아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책도 사보고…. 그렇게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게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장학금 가지고 잠시라도 네 삶의 여유를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내 마음이야.

둘째, 교수님이 학기 초마다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니? 이런 저런 일들 하느라 그렇지 너희들의 삶에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는 말 말야.

누군가가 너를 생각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해.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 그런 것이 어른이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거든.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잘 안다. 아이들에게 해 주었던 말들 하나 하나는 그간 심리적 가난의 아픔 속에서 여유 없이 살아온 나 자신의 경험 속에서 나왔다. 나를 이해하고 견뎌 주었던 사람들, 상담을 공부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속에서 나 나름의 방식으로 심리적 가난을 다루어 온 경험의 맥락에서 마음속 이야기를 해 주었다.

2015.10.28. 페이스북에 남긴 글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불러다 짧은 면담을 했다.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지고 우는 아이들.

한 아이는 평평 운다.

어린 나이로 감수성도 풍부하겠지만, 무슨 삶의 곡절이 있어서 일까 싶기도 하다.

위니캣이 말한 ‘환경으로서의 어머니’가 생각났다.

아이가 다치지 않고 자기 놀이에 푹 빠져 있도록 보호하면서 조용히 지켜보는 엄마의 기능….

결론적으로 오늘은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어떤 아이는 눈가가 축축해졌고, 다른 아이 하나는 긴장감을 담은 어색한

웃음을 짓는다. 또 다른 한 아이는 허물어져 내리 듯 흐느껴 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현재로서 나는 잘 알 수 없다. 기회가 된다면 물어보고 싶기는 하다. 나의 행위가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너희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월등한 내가 호의를 베푸는 거야. 잘 해야 해”라는 훈계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심리적 가난 속에 오래 살아오면서 내가 절실히 바라던 것은 따뜻하게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이었다. 나의 고통을 알기에 그 고통을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선부르게 나를 대신하지 않으려는 긴장감 있는 ‘선의(善意)’ 말이다. 비록 여전히 삶이 춥더라도 자기 두 발로 서 있는 게 전처럼 외롭거나 피곤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학생들을 도운 과정을 글로 페이스북에 올리고 난 후에 평상시 한산한 나의 페이스북에 평소보다 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다. ‘좋은 선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기분이 상기되었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내 자신이 괜찮게 느껴졌다.

2015.10.28.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대한 댓글  
 “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훈훈합니다.^^”

“멋진 어른이시네요…! 저는 이제 아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른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계(?)에 발을 막 디뎠는데 나중에 진짜 멋진 어른이 되려면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현금보다 더 소중한 걸 주신 것 같네요! 장학금 받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걸 주시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참 좋은 선생님!!^^”

학생들을 생각하는 내 마음의 한 부분은 내가 그 아이들과 같았을 시절에 누려보지 못해서 힘들었던, 누군가와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서였을지 모른다. “너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나 스스로 그런 관계를 갈망해 왔기 때문이다. 가난으로

인해 겪는 수치는 누군가 말없이 나를 바라봐 주었을 때 비로소 진정되고, 치유된다. 말없이 따뜻하게 바라봐 주는 존재, 나의 부족함과 실수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를 견뎌주는 존재 말이다.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한 목사님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연을 보았다. 마음이 아팠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나의 동기가 드러났다. 생면부지의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동기와 제자들을 돕고자 하는 동기는 다를 바가 없었다.

2015.10.28. 개인 분석 카페에 올린 글  
눈물이 난다.  
슬픔 속에 살며 상처를 키운 아이들  
누추함이 일상인 삶  
자기를 도저히 수궁하기 힘든 나날들

돈이 없어서 겪어본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마음을 보는 게 예사롭지 않다.

함께 살고 싶다.

나의 동기 중 상당 부분은 어쩌면 ‘아픈 나’를 돌보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다소 기만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이 애정 어린 돌봄이 반영된 관계였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무도 날 주목하거나 소중히 대해 주지 않을 때의 아픔 같은 것 말이다.

가난 극복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는 힘과 지지가 되어 주는 관계였다.<sup>37)</sup> 구체적으로는 재정적으로 때로는 역할 모델로서, 그리고 국가나 지지체의 공적 원조를 통해 가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가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요한

---

37) 김교성·노혜진 (2011); Hudson (2016); Tuason (2008).

관계에서 어려움 - 이혼, 가정 폭력, 방임, 학대, 사회적 위축 - 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sup>38)</sup>

선행하는 연구들과 나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나는 오랫동안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줄 누군가를 필요로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지지적 관계는 가난을 벗어나는 과정에 큰 힘이 된다. 내가 20대 중반부터 상담을 공부하기 시작했던 배경에는 무의식적이었지만 내가 속했던 가난한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위로하고 애도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일 수도 있다. 돌이켜 보면 나는 가까운 관계에서 위로와 돌봄의 말을 들어 본 적이 많지 않았다. 위로와 돌봄은 주로 약함이나 취약함이 드러날 때 주어지는 회복의 언어에 속한다. 나는 오랫동안 가난을 힘 있게 벗어나고 싶은데 마땅한 역할 모델이 없었기에 시행착오를 했던 것 같다. 잘 알았다면 것처럼 오랜 시간을 맴돌며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 VI. 나가며

나의 이야기는 가난 극복의 경험에 대한 것이다. 나의 이야기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의 경험을 통해 보았듯이 가난은 자신의 현실을 왜곡하고 편향시키는 심리적 기제를 보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난이 떳떳하거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닌, 가난한 자신이 폭로되었을 때 수치와 불안을 느끼게 될 가능성과 관련된다. 가난은 우리 자신을 작고, 초라하게 만든다. 따라서 가난한 자기 자신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를 촉발시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관련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

38) 김진숙·이혁구 (2012); 하경희·강병철 (2013).

될 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가난을 증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sup>39)</sup> 정확하게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의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가난을 증명하고, 가난을 입증하는 일은 피곤하고 고단하며 쉽지 않은 일이다. 가난을 입증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힘을 다해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마땅하고 합리적인 절차일 수 있으나, 심리적 차원에서는 위협적이고, 외상적 노출이 될 수 있다.<sup>40)</sup> 따라서 누군가를 돕기 위한 제도를 실행하는 교사나 상담자들, 혹은 행정가들은 행정적 절차와 명확성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물리적 가난과 더불어 심리적 가난을 겪고 있을 이들의 ‘인간적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가난을 겪고 있거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내면적 갈등으로는 합당한 욕망에 대한 자기 처벌적 태도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관점이 가진 문제점은 가난한 사람들의 표면적 행위에서 읽혀지는 나태함, 의지의 부족, 무계획성 등을 근거로 가난한 삶에 대한 ‘낙인(stigma)’을 찍는다는 점이다. 즉 겉으로 드러난 가난한 이들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니 그들은 애초부터 자활을 할 의지가 없거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는 적절한 도움과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심리적 특성으로서 자기 처벌적 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표면에 드러난 ‘게을러 보이는 행동’이라는 내용(text) 하단에 있는, ‘욕망을 인정받거나 수용 받아 보지 못했던 경험’이라는 맥락(context)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무력감과 무계획성

---

39) Hudson (2016).

40) Hudson (2016).

에 화를 내거나 의심을 하기 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 개인의 주체성을 발견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른다. 따라서 가난한 이들의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내용적으로 드러난 부분 이면의 맥락적 부분을 탐색하기 위한 현장 실천가들의 인내와 탐색적 태도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가난하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는 ‘위로’와 ‘공감’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취약함이 드러나는 경험이고, 그러할 때 요구되는 것은 애정 어린 눈빛과 잔잔한 위로라는 사실이다.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의 상실과 없음을 채워주고, 견뎌 주며 말없이 바라보며 응원해 준 관계 속에 있었다. 이것은 상실이나 결핍으로서의 가난이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나의 주장이 가난을 경험하는 이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이니 무조건적 면죄부를 주자는 것으로 전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보는 타자의 상실에 대한 성숙한 태도로서의 위로와 공감은 상대방의 아픔은 공감하고 함께 하되 책임의 부분에서는 자기 스스로 해 나가도록 잔잔히 지켜보고 함께 하는 능력에 있다. 소아 정신과 의사인 위니콧(Winnicott)은 이러한 돌봄의 기능을 ‘안아주기 환경(holding environment)’라고 불렀다.<sup>41)</sup>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을 위로하되 동시에 그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주체성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않을 때 치료적이고 회복을 촉진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현장 실천가들은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위로와 공감을 통해 이들이 가난을 극복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

41) 최영민 (2010), p. 531.

## 후기

논문을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다.

나는 나의 작은 집, '00관 1220호'를 나와 전셋집을 얻었다. 교수가 된 지 만 1년 반 만에 수천만 원의 대출 - 정확히 말하자면 4,500만 원 - 을 받았다. 방 두 개와 거실, 그리고 주방이 있는, 이른바 '제대로 된' 집을 얻었다. 집을 얻은 전과 후로 나의 생활 패턴에 변화가 생겼다. 늘 밤늦도록 연구실에 머물던 생활에서 일찍 집에 귀가해 일하는 날이 늘었다. 수천만 원의 빚을 기꺼이 질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어제의 '빚'에 대한 공포스러운 감각이 다소 희미해진 탓이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분석에 수반되는 치유 효과라고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 이 글 역시 나의 집 거실에서 작성하고 있다.

매학기 지급하기로 했던 장학금을 재고하기로 하였다. 아이들을 돕는다는 것의 이면에 있을, 초라하고 돌봄 받지 못했던 나를 돌보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의도는 표면적인 나의 선한 의도와 무관하게 누군가를 지배하고,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사랑하되 적절한 거리를 둔다는 것은 우선 상대에 비추인, 이전의 내가 허락 받지 못해서 투사(projection)할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의 어두운 일부를 들여다보는 일인 것 같다. 멋있어 보이는 결정을 철회하는 다소 간의 부끄러움을 견디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나를 지켜보기로 했다.

## 참고문헌

- 김교성·노혜진 (2011), 「빈곤의 세대간 탈피 경험」, 『사회복지연구』, 42(1): 243-278.
- 김명찬 (2015a), 「나는 왜 서울대학교 박사가 되어야 했나?」, 『교육인류학연구』, 18(2): 163-195.
- \_\_\_\_\_ (2015b), 「상처 입은 아버지와 나의 회복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8(4): 85-120.
- 김수현·이현주·손병돈 (2009), 『한국의 가난』. 파주: 한올아카데미.
- 김정원 (2012), 「빈곤과 교육과의 관계: 대도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빈곤층 자녀들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3): 77-109.
- 김진숙·이혁구 (2012), 「신빈곤층 개인의 빈곤고착경험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6(2): 35-65.
- 박상규·이병하 (2004),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813-824.
- 오현주·이상신 (2015), 「한국인의 빈곤귀인과 복지태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의정연구』, 21(2): 165-201.
- 유진수 (2012), 『가난한 집 맞아들』, 서울: 한국경제신문.
- 이상록·이순아 (2010), 「빈곤지위의 변화에 정신건강이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4): 277-311.
- 이현주·정은희 (2014), 「다차원적 접근을 이용한 한국 빈곤집단의 유형화와 특성분석」, 『사회복지정책』, 41(2): 1-25.
- 정현정 (2013), 「일개 도시 지역주민의 주관적 빈곤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40(3): 321-345.
- 최영민 (2010),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쉽게 쓴 정신분석이론』, 서울: 학지사.
- 하경희·강병철 (2013), 「빈곤가구의 심리적 디스트레스(Distress)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7(2): 115-137.
- Allison, D. (1993), "A Question of Class," in G. Kirk & M. Okazawa-Rey (eds.), *Women's Lives: Multicultural Perspectives* (5th ed.), pp. 112-119, Boston MA: McGraw-Hill.
- Atkinson, R., & Davoudi, S. (2000), "The Concepts of Social Exclusion in the European Union: Context, Development and Possibilitie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8(3): 427-448.

- Brinkmann, S. (2014), "Doing Without Data," *Qualitative Inquiry*, 20(6): 720-725.
- Chang, H. (2008), *Autoethnography as Method*, CA: Left Coast Press, Inc.
- Chang, H., Ngunjiri, F. W., & Hernandez, K. C. (2013), *Collaborative Autoethnography*, CA: Left Coast Press, Inc.
- De Munck, V. (2000), *Culture, Self, and Meaning*, Prospect Heights, IL: Waveland Press.
- DeYoung, P. (2015), *Understanding and Treating Chronic Shame*, NY: Routledge.
- Ellis, C. (2004), *The Ethnographic I: A Methodological Novel about Autoethnography*,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 Frerer, K., & Vu, C. (2007), "An Antropological View of Poverty," *Journal of Human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 16(1): 73-86.
- Hills, J. (2002), "Does a Focus on 'Social Exclusion' Change the Policy Response?," in J. Hills, J. Le Grand & D. Piachaud (eds.),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udson, N. (2016), "The Trauma of Poverty as Social Identity," *Journal of Loss and Trauma*, 21(2): 111-123.
- Lee, S., & Vinokur, A. (2007), "Work Barriers in the Context of Pathways to the Employment of Welfare-to-Work Cli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0: 301-312.
- Lewis, O. (1959), *Five Families: Mexican Case Studies in the Culture of Poverty*, New York: Basic Books, Inc.
- Maxwell, J. A. (2009), "Designing a Qualitative Study," in Leonard Bickman & Debra J. Rog (eds.), *The Sage Handbook of Applied Social Research Methods* (2nd ed.), pp. 214-253, Thousand Oaks, CA: Sage.
- Reed-Danahay, D. E. (ed.) (1997), *Auto/ethnography: Rewriting the Self and the Social*, Oxford, UK: Berg.
- Zabkiewicz, D., & Schmidt, L. (2007), "Behavioral Health Problems as Barriers to Work: Results from a 6-year Panel Study of Welfare Recipients,"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34(2): 168-185.

##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experiences of overcoming poverty. I would like to propose how to deal with intrapsychic and relational aspects of poverty through investigat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flicts conditions experienced by multidimensional poverty. To this end, I collected self-observation and self-analysis memos, dialogues, SNS comments, etc. I continually analysed resources and drew some major categories.

“Poverty as shame and anxiety” is related to dissonance and anxiety caused by fear that psychological poverty may become known. “Self-punishment for desire” is related to disapprovals on desires to overcome poverty and disorders to be an agent for their own life. “Poverty cure: empathic relationships” is about to the enough experiences of good relations for pleasing recovery of the poverty.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dynamics of people suffering from the difficulties of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reasoning out some implications of solutions.

**【Keywords】** Poverty, Shame, Agency, Relations, Autoethnography

논문 투고일: 2016. 8. 30

심사 완료일: 2016. 10. 11

게재 확정일: 2016. 10. 11